

# 과피루스부터 전자책까지 : : : 시대와 소통한 책의 역사 한눈에



## ●제임스 레이븐 등 16명 '옥스퍼드 책의 역사' 출간

고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전하는 책의 역사에 대한 의미심장하고 새로운 해석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에섹스대학 근대사 명예교수 제임스 레이븐 등 세계 일류 학자 16인이 모여 시대별 문화와 사회에 미친 책의 역사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역사 '옥스퍼드 책의 역사(교유서거가·홍정인 역)'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전하는  
다채로운 책의 역사  
디지털 출판시장 속  
책의 새로운 가치·영속성 환기

문자 체계나 인쇄술 같은 기술은 그동안 책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규정해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더는 책이 물질적 형식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피루스나 양피지, 종이로 접어 만든 물건이 책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이제 무너지고 있다. 데이비드 미첼과 필립 폴먼 같은 작가들이 트위터에 소설을 쓰고, '구글 북스'가 저작권의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은 출판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변혁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질서가 무너진 상황은 창의적인 가치를 창출할 기반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책은 책이 죽은 자리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옥스퍼드 책의 역사'는 책의 역사가 한 유형이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문학·저널리즘·기술 연구 등 책의 역사는 세계의 폭넓은 학문과 관계하며 발전해왔다. 출판이 위기에 빠진 시대에 오히려 책의 영속성을 환기하는 이 책은 디지털 시대의 변혁에 대응할 방법을 서적으로 집약해본다.

이 책은 책의 역사와 관련한 전 세계적 활동에 주목한다. 르네상스, 종교 개혁, 계몽주의, 프랑크 혁명, 산업화 등 유럽과 북미에 관련한 사건뿐 아니라 아시아 문화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슬람 세계 속 아랍 문자의 원리와 쿠란 필사본, 19세기 중

후반에 베트남과 라오스 등 남아시아에서 인쇄업이 발달한 양상을 살펴본다.

또 책의 12장에서는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에서 책이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이야기한다. 목판 인쇄본과 활자 인쇄술을 지나온 세 나라의 출판 산업은 1990년대 이래 인터넷과 전자책의 도전에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책이 들어선 상황에서 우리는 책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상황과 뒤얽힌 수많은 산업을 이해해야 한다.

이전보다 많은 책이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인쇄된 현재 상황에서 인쇄물의 장기적 성장세는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장세는 전자책이 폭발적으로 팔린 상황에 영향받은 것이다. 전통적인 코덱스 개념에서 비롯된 디지털 가공품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독자는 긴 글은 전자책으로, 뉴스나 메시지는 스마트폰으로, 잡지는 태블릿으로 읽는다. 기술 발전과 연동하는 전략적인 읽기가 가능해진 시대에 이 책은 책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을 모색한다.

언제나 책 생산에는 새로운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출판 형식 사이에 수렴하고 발산하는 잠재성을 탐색했다. 역사적으로 책은 새롭고 논쟁적이고 혼종인 것을 추구해왔다. 책의 역사를 탐구하는 행위는 책이 새로운 가치와 관련해온 시간을 지켜보는 것이다.

저자 제임스 레이븐은 서문을 통해 "오로지 한 가지 유형의 책의 역사만 있을 수는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엄격하게 정의된 '책의 역사'나 '절대적인 책의 역사'라는 개념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새로 나온 책

### ▲문화通plus가을호



이번 호에서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가운데 금봉미술관에서 열리는 중국관을 집중, 취재했다. 개혁개방 이후 30년의 중국미술을 압축해 보여주는 전시다. 장기 시리즈 1박 2일에서는 진주정씨 600년 집성촌인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내동마을 찾았다. 팔열부정려와 사인정, 월호정, 삼세삼강비 등 역사 유물에 얽힌 사연을 소개한다. '이달에 만난 예술인'에는 제2회 한밭전국국악대회 무용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지원 단국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기 칼럼니스트 조용현의 '독친낙지' 이야기, 맛 칼럼니스트 조창일의 음식으로 읽는 문화 '생강' 등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광주문화발전소

###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진은영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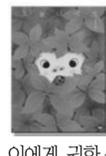
등단 후 22년 동안 네 권의 시집을 출간하며 감각적이고 치열한 언어와 예리한 사회인식으로 사랑 받은 진은영 시인이 신작 산문집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을 펴냈다. 그가 호명하는 작가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강렬하고 매혹적이다. 카프카, 울프, 바흐만, 카뮈, 베유, 플라츠, 아렌트. 자신과 맞지 않는 세계 속에서 고유함을 잃지 않기 위해 분투했던 이들은, 역사의 위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시인은 사랑하는 작가들의 책과 문장들을 살피며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단 한 사람을 걱정하는 문학의 인간함에 대해서도 쓴다. /마음산책·1만6천800원

### ▲그림값 미술사-이동섭 저자



'그림값의 비밀을 통해 서양 미술사의 흐름의 파헤치다.' 비싼 그림들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비싼 그림들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미술'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 중 주목받지 않은 것이 '그림값'에 대한 이야기다. 서양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귀한 작품들에 천문학적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이해해도 난해한 현대미술 작품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드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다. 그림값이 결정되는 미술 시장은 미술사, 경제학, 역사학, 심리학 등 종합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곳이다. /공북·2만2천원

### ▲오늘, 너에게-최속희 글·그림



오랜 시간 아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림책을 지어 온 최속희 작가의 '오늘, 너에게'가 출간됐다. 작가는 한 층 더 파스한 시선과 넉넉한 품으로 아이에게, 귀한 생명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한다. 책을 열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의 일상이 하나씩 펼쳐진다. 책 속 마주하는 아이의 일상은 여느 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작가의 회상과 진심 어린 글이 더해, 그때 그 순간 아이를 향한 다정한 시선과 애뜻한 심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웅진주니어·1만5천원

## 움트는 새싹·나뉘는 낙엽 돼...주와 함께하는 삶

### 지형원 기도집 '흙이라면 바람이라면' 출간



언론인으로 광주무등교회를 섬겨온 지형원(사진) 장로가 기도집 '흙이라면 바람이라면(쿰란출판사)'을 출간했다.

표제인 '흙이라면 바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흙이라면 그속에서 움트는 새싹이 되고, 하나님이 바람이라면 바람과 함께 나뉘는 낙엽이 되고'라는 뜻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책은 1부 '기도의 시', 2부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 3부 '특별한 날의 기도'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실린 80여 편의 기도문은 그가 10여 년 동안 장로로 시무하면서 썼던 대표기도문과 특별날의 기도문을 묶은 것이다.

1부 시 '무등교회 청소년부 또는 우체부'에서는 '내 나이 일흔살 즈음에는 무등교회 청소년부, 또는 이 근방을 담당하는 우체부가 되고 싶다/광주시 서구 매월동 300번지 매화꽃잎에 달빛이 고이고/교회당 십자가 철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앉는/무등교회, 아니 우리교회에서/아침부터 저녁까지 뜨락을 쓰는 청소년부가 되고 싶다'고 썼다. 또 '빈배'라는 시에서는 '주님, 앞으로의 삶은/빈배를 저으며 나아가려 합니다/사람들은 만선의 귀향만을 원하지만 만선의 배에는 주님 계시 자리가 없으니/빈배로/빈배로 돌아오다가/언제 어디서든 멈춰서 주님을 테워드리려 합니다'고 고백하고



있다. 2부에서 지 장로는 '내가 사는 집도 비밀번호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내가 맡겨놓은 예금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찾을 수 없는 이 복잡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번호는 절대로 잊지말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은혜', '연결과 접촉', '눈물행진', '영적수확', '미래의 이력서' 등 일상생활에서 느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다.

소강석 분당 새에덴교회 목사는 축간사를 통해 "지형원 장로의 기도문은 지금까지 출간된 기도문과 사뭇 다르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걸으며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귀엣말로 속삭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형원 장로는 광주일보 문화부장 겸 논설위원, 편집국장 역임했으며 전라도문화포털 '문화통' 발행인,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등을 지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b>시내 지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국 222-8171</li> <li>· 산수지국 224-4188</li> <li>· 학운지국 673-6836</li> <li>· 화정지국 372-9140</li> <li>· 금호지국 376-7153</li> <li>· 풍암지국 603-0311</li> <li>· 노대지국 674-358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지국 453-2554</li> <li>· 광천지국 374-2120</li> <li>· 진월지국 676-2726</li> <li>· 봉선지국 673-6836</li> <li>· 백운지국 673-0123</li> <li>· 두암지국 266-1920</li> <li>· 농성지국 362-41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지국 222-8171</li> <li>· 운암지국 529-3548</li> <li>· 용봉지국 261-1503</li> <li>· 신가지국 954-1420</li> <li>· 양산지국 574-3745</li> <li>· 하남지국 951-9954</li> <li>· 운남지국 952-168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치지국 261-9461</li> <li>· 문흥지국 261-9462</li> <li>· 일곡지국 573-3200</li> <li>· 첨단지국 971-7374</li> <li>· 치명지국 371-9584</li> <li>· 수완지국 955-0451</li> <li>· 광산지국 944-0993</li> </ul>
<p><b>지방 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지사 061)270-8689</li> <li>· 동목포지사 061)278-0740</li> <li>· 남목포지사 061)245-3797</li> <li>· 신안지사 061)980-8300</li> <li>· 순천지사 061)746-1600</li> <li>· 여수지사 061)651-643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시사 061)335-0005</li> <li>· 광양지사 061)793-6800</li> <li>· 구례지사 061)782-4696</li> <li>· 담양지사 061)383-5566</li> <li>· 곡성지사 061)362-5746</li> <li>· 고흥지사 061)832-62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성지사 061)852-6644</li> <li>· 화순지사 061)373-7795</li> <li>· 장흥지사 061)863-6800</li> <li>· 강진지사 061)432-8899</li> <li>· 해남지사 061)535-5849</li> <li>· 영암지사 061)473-715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안지사 061)453-3645</li> <li>· 함평지사 061)322-0882</li> <li>· 영광지사 061)353-5133</li> <li>· 장성지사 061)394-3636</li> <li>· 완도지사 061)555-0134</li> <li>· 진도지사 061)542-4330</li> </ul>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